

# ‘시민들의 든든한 동행자’로서 의정활동 매진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꿈과 함께하는 의회’를 가치로 내걸고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든든한 동행자로서 그 어느 해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주시의회의 2017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 ▲민생 조례 등 101건 처리

전주시의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정례회(1회)와 임시회(4회) 등 5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49건, 동의안 31건, 결의안 1건 등 총 10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의원들은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노숙인, 성매매 피해자,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지난 3월 지방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 ▲시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버스노선 개편과 발생 추정차 문제,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 확대, 미세먼지 대책,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시민체육시설 특혜사용, 저출생 정책, 지방채 재정건정성 위협 등 다양한 주제의 시정질문(8건)과 5분 자유발언(45건)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지방자치 제도 개선 요구

### 의원연구단체 중심 시민 공감 정책 모색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전주시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 1조 8,666억 원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는지 예산집행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했다.

### ▲의원 연구 활동 활발, 소통 의정 구현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활성화, 전주시 출생정책 제안, 부모학습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토론회, 강연회, 비교견학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전주시의 희망찬 내일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정책자문단과 의정사이버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역동적인 소통 의정을 펼쳐왔다.



### 김명지 의장, ‘시민의 꿈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 앞장



김명지 의장은 시민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시민이 꿈꾸는 전주, 시민의 꿈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왔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전주국제영화제, U-20 월드컵 개

최 등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힘써왔다. 특히 지방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각종 지역현안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는 등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에 진력하고 있다.

### 송상준 부의장, ‘생산적 의정활동’ 적극 지원



송상준 부의장은 정당 간의 갈등, 반복보다는 의원 간의 화합과 협력으로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토

론하고 연구하며 의정활동의 결과물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삼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해왔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가로 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선진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의회 상임위 의정 성과

###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회기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안전 심사와 조례·제도 개선 등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해오는 데 주력했다.

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회기 결정 5건,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의회사무국 복지환경 전문위원의 직급을 기존 지방행정사무관 및 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환경사무관으로 개정하는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해 적재적소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 충실...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전주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 홍보, 감사, 예산, 기획, 인사,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부터 제341회 정례회까지 5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이 가운데 최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또 오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지역 사회 내 평화통일 문화 확산과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전주시지원봉사센터, 전주종합경기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내내체육관 등 주

요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 ▲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주력...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6만 시민에게 생산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경, 건강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의 환경과 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더 나은 전주시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5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 10건, 동의안 15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다뤘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이경신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조례(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제정돼 복지 취약계층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현장활동과 2017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지산 생태트레일 조성 사업 보고,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관련 등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전통문화 보전·발굴과 관광산업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도시 전주를 세계에 알리고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으로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 동안 5차례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8건, 동의안 7건, 건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백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제반여건 상 연 1회 이상에서 2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또 ‘전주시 동화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가 제정돼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 5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해 U-20 월드컵 대회와 전주국제영화제 준비 사항을 직접 점검하며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노력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 건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건설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 기반 확충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부터 제341회 정례회까지 5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14건, 동의안 5건, 의결청구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금융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 외에도 ‘차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효성부도입대주택 아파트, 만성·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임대주택 수선비 공사 집행과 도시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과 개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향 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전주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후적 처방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 심의로 건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했다.



행정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